

SKT-CJ Hellovision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?

토론문

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김진억

1. 누구를 위한 인수 합병인가?

- 통신재벌의 이윤추구, 그리고 CJ와 전략적 제휴
- SK그룹 : '통합 미디어 플랫폼' => 3대 신성장분야
- 2018년까지 유료방송 가입자 1500만명 목표
- M&A 아니면 불가능, 추가 M&A나 사업구조 재편 가능성
- 추가 규제 완화되어야 가능
- 재계와 정부 간에 뭔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 가능
- 그리고 자본간 전략적 제휴
- => SK '통합 미디어 플랫폼'과 CJ 콘텐츠
- => SK 통신 IOT과 삼성 가전 융합상품

2. 재벌(자본)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제도적 보장

- 그간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완화 지속, 확대
- 이는 전략적투자자(SK)든 재무적투자자(MBK와 맥쿼리)든 공히 요구
- 이번에도 관련법상 문제를 교묘히 피하며 인수합병
- 결국 정부가 자본의 이익 확대 위해 공공성을 약화

3.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인가?

- SK와 CJ 재벌에게는 이롭다.
- 그럼 시청자, 노동자 등 사회구성원 다수에게 이로운가?
-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인가?
-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인가?

4. 공공성, 다양성, 지역성, 노동권 침해(케이블방송에 초점)

[참조] 통신은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재

- 따라서 통신망은 공기업이 담당(불필요한 영업비, 비용 지출 불필요)
- 콘텐츠로 다양성과 가치 창출

- 통신보편성 강화 : 언제 어디서 저렴한 가격에 통신을 제공받아야함
- 원가공개 및 사전심의제 도입, 통신비 인하 필요

1) 케이블방송의 의미와 역할

- 공중파 하지 못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라!
- 지역에 소통과 공감의 장을 제공하라!
- 풀뿌리 지역발전에 기여하라!
- SO 사업자는 지역 내 연고를 둔 사업자를 대주주(1995년)
=> 대기업 진출 차단, 지역발전에 기여
- 공공성, 지역성, 다양성을 바탕으로 출범

2) 케이블방송 공공성, 시청자 권리, 노동권 침해 양상

구분	자본	사회적 책임
가치	이윤추구 시장화(민영화), 무한경쟁,	공공성, 다양성, 지역성
고객, 시청자	고객을 호갱으로 부당영업, 고객정보유출	질 좋은 서비스 시청차 권리 보장
고용형태와 질	나쁜일자리. 비정규직, 간접고용 양산	좋은일자리 직접고용
노동 운용방식	노동통제, 경쟁과 갈등	협력과 공조

3) 통신의 케이블방송 인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.

1) 공공성, 지역성, 다양성 훼손

- 케이블방송의 의미와 역할 축소
=> 끼워 팔기 상품으로 전략
=> 이윤추구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환경 악화
- 가장 큰 문제
=> 기능과 역할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가입자 획득
=> 융합 상품을 통한 수익창출의 부속기능으로 전략
=> 케이블방송 자체의 고사
=> 23개 직사채널 고사, 지역성, 다양성 소멸
- 역으로 직사채널을 이용한 재벌의 방송 개입
=> 방송법을 통해 자본(재벌)에 의한 방송 독점을 막아왔으나 무력화
=> 방송의 공공성 훼손 위기

2) 시청자권리 훼손

- 시청자-고객은 없고 주머니만 털어내려함
- 고객을 호갱으로!
- 불법영업, 고객정보유출 등 자행
- 반면 시청자 참여 목소리는 왜면
- 통신의 케이블방송 인수 목적은 이윤추구
- kt, sk 양강 체계를 통해 권리 훼손 지속되는 구도

3) 노동권 훼손

- 설비공사, 고객유치영업, 유지보수 및 설치업무 외주화. 다단계하도급
-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다단계하도급 없애고 업체 정규직으로 전환 합의
- 그러나 다수의 비조합원은 개인도급으로 전환
- 고용구조가 오히려 악화
- 업체 재계약(1년 내지 2년) 시 고용불안 상존
- 중간착취와 원청의 지표 압박으로 노동착취
-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노동자 상당수가 저임금(140만원 급여)
- 나쁜일자리, 비정규직, 간접고용 양산의 주범
-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고 있지 못함.
- 인수합병으로 고용불안 더 심화. 인력 감축, 구조조정
- => 3년간 고용보장 이야기, 그 이후는?
- => 외주업체 노동자는? 업체 교체 과정에서 불이익.
- => 노동조건도 열악해질 것

4. 공공성, 지역성, 다양성, 시청자-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대안 없다면 인수합병 반대한다.

- 사회구성원 다수에게 이로운가?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가능한가?

1) 공공성, 지역성, 다양성 확보

- 케이블방송의 의미와 역할 소멸이 아닌 강화 방안 전제
- 프로그램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-정책적 장치
- => 제작 인력, 장비, 제작비용 등
- 재벌의 방송개입 내지 영향력 확대를 막을 방안이 있는가?
- => 독립성, 자율성 확보와 감시통제

2) 시청자 권리 보장

- 불법, 부당영업에 대한 감시통제와 제재
- 시청자의 목소리 반영
 - =>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형식적 구색
 - => 지역사회와의 참여와 역할 확대

3) 노동권 보장

- CJ헬로비전 노동인력 유지(외주업체 포함)
 - => 케이블방송 유지, 역할 강화, 사회적 책임 의미
- 좋은 일자리, 직접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
-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
- 노동탄압이 아닌 노사 협력 실현
-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